

일본의 경제 산업성 - “섬유는 프론트 러너”로서

섬유 비전 적극 추진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제조 산업국 차장은 섬유 전문지와의 정례 회견에서 양(量)에서 질(質)로 가치관이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문화 관련 분야는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섬유는 프론트 러너(front runner)로 활동하여야 할 산업이라는 기대를 말하였다.

“도쿄발 일본 패션 위크(JFW)”를 관람한 후 생활 문화 사업으로서 섬유의 역할을 새삼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해외의 프레스 바이어들의 참관이나 매스컴에 많이 노출됨으로써 섬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디자인이나 패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 반면에 소재나 기술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부추기는 노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관·민 일체의 사업을 강화하여 클로즈드로 되기 쉬운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공동 사업에 참가하려는 의식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제휴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파리, 밀라노, 뉴욕보다 앞서 간다는 높은 의지를 갖고 시작한 사업이며, 과제를 해결해가면 더 강하게 될 수 있다고 다음 기회에의 의욕을 말하였다.

섬유 비전을 책정하기 위한 검토에 대하여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가는 리딩 인더스트리 중에서 섬유 산업이 해야 할 역할은 크다고 평가하고, 목표로 할 방향성으로서 자동차나 항공기, 정보 단말 등 성장 분야에의 소재 공급과 디자인 패션성의 소프트 면의 강화를 지적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2006년도부터 시작한 전략적 기반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채택된 80건 중, 섬유 관련이 3건에 불과한 것을 언급하며, 중견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자를 갖고 있다. 새로운 제휴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기 바란다. 우리도 각 시책을 PR하여, 효과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